

은퇴가계와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비교 연구

조 혜 진(서울대 노년·은퇴설계지원센터 연구교수)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 은퇴자와 은퇴가계에 대한 경제적, 노동공급 측면에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2010년은 베이비붐세대의 선두주자인 1955년생이 공식적인 퇴직연령인 55세를 맞이하여 은퇴기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에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은퇴자 및 중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연구(손종철, 2010; 정순돌·김정원, 2010; 박군석, 2009; 백은영, 2009; 최성수·이가람·이성민, 2008; 윤현숙·이미진, 2007)들이 있고, 최근 베이비붐세대와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대비하는 측면에서 은퇴가계와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이미 은퇴한 은퇴자의 특성과 곧 은퇴를 맞이하게 될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베이비붐세대가 더 나은 노후생활과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고령화연구패널」 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은퇴자,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아직 은퇴하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 등 세 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집단별 특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45세 이상 중고령자 총 10,254명 중 베이비붐세대에 속하거나 은퇴자인 4,31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각 집단의 일반적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각 집단별 특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기 위해 χ^2 검정, ANOVA와 Scheffe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상태 관련 변수를 보면 32%가 건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반면 27%는 보통, 41%는 나쁜 편이라고 대답했다. 은퇴 이유를 살펴보면, 더 많은 여가시간 확보 또는 은퇴해도 충분한 수입원 확보 등 자발적인 은퇴는 12%에 불과한 반면, 본인과 배우자 등의 건강상의 이유가 47%, 정년퇴직 및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은퇴한 이유가 41% 등으로 비자발적 은퇴가 88%를 차지했다. 즉 은퇴생활과 은퇴원인에는 건강이 매우 큰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은퇴집단과 비은퇴 베이비붐세대, 은퇴 베이비붐세대를 비교한 결과 연령, 학력, 결혼상태, 가족원수, 자녀수, 세대 구성 등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집단으로 분류되었으나 자가/전월세 등 거주형태와 대도시/중소도시/읍면 등 거주지역은 은퇴집단과 비은퇴 베이비붐세대가 동일한 성격의 집단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거주형태와 거주지역 등 주거와 관련된 부분이 집단구분의 중요변수로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은퇴자의 은퇴생활을 원만하고 바람직한 측면으로 유지하는 데에는 정신적, 육체적 측면의 건강상태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므로 베이비붐 세대도 은퇴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준비에만 치우치지 말고, 본인의 건강관리를 잘 하고 원만한 인적관계를 형성하여 은퇴기를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산의 대부분을 거주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은퇴를 대비하여 거주지역과 거주형태 등 은퇴주거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미리 할 필요가 있으며, 주거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주부동산을 은퇴소득원으로 활용하는 주택연금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된다.